

# 일본인사위의 한국인장모 사랑

오다 마코토 지음 「오모니」

일본에 대한 나의 감정은 말그대로 감정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점점치 못한 용어를 동원해 일본을 비난하거나 때론 일본열도 침강설에 은근한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는... 우연히 알게 된 일본인들과의 서툰 대화를 통해 나의 이런 태도가 그들에겐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것이란 점을 알게 되긴 했으나 그래도 난 여전히 일본인 혹은 일본사람보다는 일본놈이란 무식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조치훈이 한국말을 잘 구사하지 못하고 일본여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그를 싫어하는 나는 이 책의 저자 '오다 마코토'가 한국여자와 결혼하고 거기에 덧붙여 그의 한국인 장모에 관한 책까지 냈다는 점에서 역으로 그를 신뢰하기로 했다. 비록 '어머니'를, '오모니'란 명칭으로 서투게 부르고 있긴 하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오모니는 저자의 장모로서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문맹이지만 우리네 할머니들이 거개 그러하듯 생활을 통해 지혜를 얻은 분이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잊지 않고 있지만 한국에 들어가는 것은 꺼리는 재일한국인 그리고 그녀의 자식 중에는 남한의 국적을 가진 이도, 북한의 국적을 가진 이도 있다. 또한 오모니가 사용하는 언어는 일본어도 한국어도 아닌 '오모니어'다. 그녀의 사고방식 역시도 일본과 한국의 것이 외피와 내피로서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스런 오모니를 저자는 때론 감탄으로 또 때론 사랑으로 그리고 아주 가끔은 당혹함으로 바라보고 있다. 돈을 들여 관광을 시켜드림에도 불구하고 심드렁한 오모니를 보면서 저자는 아이처럼 빠지기도 하고, 독일에서 마주친 빨간머리의 여자가 가발을 쓴 것이라며 기여코 만져보려 하는 오모니에게서 순수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은 얼핏 박수동의 만화책 「장모님 장모님 우리 장모님」을 연상시킨다. 비록 한국장모에 일본인사위라는 점이 특별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따스함이나 넉넉함은 한국의 어느 장모 사위와 다름이 없다. 그리고 이런 공통분모들에 관한 저자의 관심이 역으로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된다.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라는 틀에 문구가 어쩔 수 없이 적절할 수밖에 없었던 독서경험이었다. 한국인으로서의 오모니의 특징들보다는 오히려 할머니로서, 장모로서 오모니가 지닌 미덕들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저자는 내게 부담없고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다고 생각된다.

일본인이나 일본에 관한 거창하고 새로운 지식을 기대한 독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경험이었겠지만...

## 박혜준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9통5반

### 「낙타는 따로 울지 않는다」

“인형을 잃은 꼬마 계집애의 슬픔이 남편을 잃은 과부의 슬픔보다 못하다는 보장은 없다.” 「낙타는 따로 울지 않는다」(김한길 지음, 청하)의 지은이는 책 속 작가의 말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이 어귀를 실어놓았다. 이 짧은 말은 그가 써낸 책에 대한 긴 설명이자 변명이며 당위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한 남자의 혹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다. 정치적 바람을 타고서 일개 군인에서 고위급 인사로 탈바꿈한 아버지를 둔 박준은 미국에서 거주하며 몇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의 본업은 카지노에서의 도박과 여자와 마약이다. 향락과 퇴폐로 위장된 허무가 그의 성격적 특성으로 주어져 있다. 그리고 또 한 여자는 맹춘자라는 촌스러운 이름을 가진 술집여자 우희다. 그녀는 짧은 나이에 비해 길다랗고 굴곡있는 인생이야기를 깊어지고 있으며, 꿈과 희망을 찾아 불법적으로 미국 땅에 스며든 그런 여자다. 그리고 박준을 가까이에서 안타깝게 지켜보는 여자다.

충동에 의한 것인지 오랜 결심에 의한 것인지조차 명확히 구별할 수 없게 하는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박준이나 근거로 제시될 만한 이유도 없이 몸으로 먹고 사는 직업을 선택 선택한 우희가 결코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이야기가 쉽게 대중적 공감을 획득할 만한 것도 아님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읽어낼 수 있음은 순전히 지은이의 공이다.

70년대를 정점으로 급격히 늘어난 이민자의 수효는, 줄담는 친척 한 들쭉 미국에서 살고 있지 않은 게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까지 증가했다. 경제적인 혹은 교육적인 이유를 둘러대며 꿈과 희망, 풍요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난 이들의 그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것인지? 뿌리내리기에 얼마만큼이나 성공하고 있는 것인지?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 얼마전에 있었던 LA폭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이미 거론되어야 했

고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그런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미 오래전에 이민사회의 허무를 꿰뚫어 본 지은이의 앞사람이 놀랐다.

카지노라는 낯설은 배경과 갖가지의 도박들, 심심찮게 끼어드는 정사들이 읽는 흥미를 둔 군다. 더욱이 이 책을 원작으로 하는 같은 제목의 영화까지 만들어져 있음으로 문자매체와 영상매체의 차이를 비교해볼 수도 있다.

## 이범욱

인천서 북구 청천2동 259-5 미도7차아파트 4-408

### 이원복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잇따른 공산권 국가들의 변신으로 말미암아 반세기 이상을 격렬하게 맞붙었던 두 이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논쟁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가 싶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라 밖의 이야기일 뿐이지, 아직도 남침이니 간첩이니 하는 용어를 심심찮게 거론하는 우리네의 뉘는 아닌 것 같다. 이념의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지 못할 뿐더러 그 갈등의 골이 더 깊어만 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논쟁이든 갈등이든 그것이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결과를 갖기 위해서는 내용 자체를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념이라는 것은 그 용어의 추상성에서 뿐 아니라 내용에 이르기까지 까다롭고 난해함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보통사람들의 접근을 아예 막아버리고 있다. 그래서 대개가 이념의 해석들 속에서 헤매다가 더 이상의 이해를 포기한 채 갈등상황에 직면하기 십상이다. 어려운 내용을 쉽고도 재미있게 이해할 수는 없을까?

명쾌한 답변이 될만한 방법 제시의 책이 있다. 경제학과 교수의 전문적인 책을 원저로 해서 글과 그림의 복합체, 즉 만화로 다시 꾸민 「자본주의·공산주의」(이원복 글·그림, 송병락 원저, 동아출판사)가 그것이다. 즉 만화로 보는 혹은 읽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설명서인 셈이다.

지은이가 책머리에서 “경제나 이념도 그 원칙이란 단순하고 일상적인 삶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소박한 믿음”때문에 책을 냈다고 밝히고 있듯이 일반 독자도 누구나 같은 믿음에 의해 책을 읽어낼 수 있으리라는 것이 이 책의 강점 중 하나다. 일단 접하기에 부담이 없다. 재미있고, 쉽게 읽어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롭다. 게다가 마지막 장을 덮고 나면 두 이념의 기본 골격을 환히 알게 된다는 매력적인 면도 있다.

무엇이든 새로운 시도는 가치 있는 일이다. 그 새로운 시도가 성실한 노력으로 뒷받침되어 풍성한 결과를 일구어낸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자본주의·공산주의」라는 한권의 만화책은 이런 찬사를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한 권의 책 안에 인간의 경제활동의 시작에서부터 21세기를 위한 당부까지를 담느라고 간략한 요점들만 언급한 아쉬움은 있으나, 이것은 지면상의 사정일 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독자는 책 속의 안내대로 그 내용을 상세히 담은 책을 구하면 된다.

## 김미영

서울 용산구 신계동 1-31 삼락연립 가-201

### 「어머니 당신은 이제...」

지구의 반대편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쓰러린 역사적 사건을 공통의 기억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기까지 하다. 한국의 1980년, 아르헨티나의 1978년. 아르헨티나 대통령 집무실이 자리한 카사로사다 앞의 오월광장, 광주 5월의 광장. 이렇게 처음부터 「어머니 당신은 이제 우리들의 동지입니다」(실천문학사)는 우리와 아무런 정서적 무리없이 만나게 된다. 「어머니.....」는, 부제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들의 노래'에서 직감할 수 있듯이 15년의 세월을 거슬러올라가 지금도 간간히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상처-그 핵심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 시집의 40여편의 시들은 우선 그 사실성에서 충격적이다. 가슴을 치게 하는 섬뜩한 세월의 상처가 그 피해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숨김없이 폭로된다. 군사정권의 전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체포, 구금, 실종..... 이것이 그 실체인 것이다.

이 시편들은 용기있는 인간들의 양심의 외침이요 노래이다. 그들이 침묵을 깨뜨리고 피켓을 들고 광장을 에둘며 '저항'의 시구를 쪼아대게 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용기였다. 몇편의 시조차도 출판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육필로 찍어져 혹은 등사되어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고 노래로 불리어져 오늘 우리 손에서 읽히게 만든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우리 시대 진정한 시인들이 아닌가. 망명의



일이 좋아 일을 찾아 즐기는  
**최병윤 부장을 부르시면**

그는 일을 무척 좋아하고  
무엇보다도 제일 좋아합니다.

일에 대한 설명을 듣는  
그의 태도는 겸손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일을 깊이  
이해하고 배우려는 열성에  
그의 눈과 손발에선 불꽃이 튀입니다.

그의 구두는 3, 4 개월을 못 넘겨  
옆구리가 터져나갈 정도이니까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컴피아트에서  
일과 함께 12년째를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그는  
일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배짱이 세며  
손발을 척척 맞추는 힘이 뛰어난입니다.  
순발력과 추진력에 책임감을 더하여  
맡은 일을 약속대로  
시원시원하게 끝내는 장기가  
그의 자랑입니다.

최병윤 부장을 부르시면  
그는 곧 귀하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컴피아트가 하는 일**

- 교과서 · 참고서, 어학교재 (러시아어 포함), 사전, 단행본 조판편집  
- 편집입력기 15대, 구문 전용입력기 2대, 수동사식기 1대  
- 혼용(국·한·구문) 출력기 1대, 구문 전용출력기 1대  
- 컴버전 전문, 필름 출력
- Text 디자인, 레이아웃, 레터링, 표지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컬러화상처리시스템

지식산업의 파이오니아 **컴피아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87-1  
TEL : 732-8274 · 738-8622  
FAX : 739-9356

고통을 기꺼이 감내한 강철같은 여인 레진느  
멜락이 이 지하통신의 담당자이다.

우리가 감동하는 것은 그들이 절망, 분노, 희망까지를 뛰어내며 끝까지 잃지 않았던 아름다운 꿈이다. “당신이 싸워 이룬 투쟁의 열매를 보았나요?” “저는 그 이전에 죽고 말았답니다.” “그대 어느새 잠들어 있습니까?” “아니오, 꿈을 꾸고 있을 뿐이지요” 젊디젊은 엄마별의 꿈은 ‘민중들에게 새 세상을 안겨주는 기쁜’ 꿈이었다.

또하나 느끼는 경이로움은, 세계 어느 투쟁의 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도 아들 누구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인 마리아 델 로사리오, 아주세나 비야플로 데 데 빈센티란 자신의 이름으로 서는 어머니들의 당당함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아들딸들도 “어머니 당신은 이제 우리들의 동지입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닌가.

1990년대 들어서도 군사쿠데타의 잔영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 “언젠가 독재자의 이름일랑 잊혀질지라도 이 시들은 씌어질 것이고 끊임없이 잊혀질 것”이라는 순결한 염원 또한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다.

번역한 이의 세심한 배려로 스페인 말의 생생한 시구를 어색지 않게 대할수 있는 것 역시 만족스럽다.

**조현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 7-43

**「史記」 講談**

우리는 책을 읽을 때, 특히 문학책을 읽을 때 그 작품보다는 저자의 약력이나 연보를 보고 감동을 받을 때가 많다. 일상인들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무수한 타협과 굴종을 인내하며 자신의 의지를 거스르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반성과 회개가 별로 없는데 좋은 책을 써낸 이들의 인생을 보면 마음이 가자는 대로 가버리는 것 같아서 일상인들에게 부끄러움과 함께 신선한 자극을 주는 것이다.

일례로 사마천은 어떠한가. 질 수밖에 없었던 싸움에 패한 장수를 홀로 변호하다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남근이 잘리우는 치욕적인 형벌을 당하고서도 「史記」를 써내지 않았는가. 그 형벌을 당했기 때문에 「史記」를 써낼 수 있었다고 해도 그 책의 업적과 의의가 조금은 훼손되지 않을 만큼 훌륭한 책을 말이다.

손되지 않을 만큼 훌륭한 책을 말이다.

우리는 「史記」를 읽으며 사마천의 인간에 대한 예리한 통찰, 불우한 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 부조리에 대한 침통한 분노를 읽어낼 수 있다. 한 인간에 대한 극심한 불행과 역경이 그것을 극복한 이에 대하여는 세상에 대해 얼마나 깊고 높은 인식을 가능케 하는지 아울러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史記」를 읽기엔 장애가 많다. 좋은 번역서들이 많이 있지만, 너무 무겁고 버겁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책은 중국문학의 권위자로 알려진 저자가 「史記」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의 진면목을 잡아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에게 손쉽게 접근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漢民族은 ‘기록’에 광적인 집착을 보여왔다. 그중에서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正史’이며 정사의 최고봉이 「史記」인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를 대표하는 역사서인 「史記」의 일독을 권유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결례가 아닐 것이다.

사마천은 自序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언젠가 공자는 周遊길의 위험을 무릅쓰고 「春秋」를 편찬했고, 굴원은 고국에서 추방되어 「이소」를 저술했고, 좌구명은 눈을 잃고서도 「國語」를 남겼다. 이와같이 사람은 모두, 마음에 울적했던 감정의 배출구를 찾지 못하였을 때, 미래에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좌절과 실패가 거듭되는 생활을 영위하는 일반인들이 사마천의 당시의 처지를 염두에 두고 읽어내려간다면 큰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게다가 이 책은 저자와 역자들이 그 점에 염두를 두고 있어 유용한 독서가 될 것이다.

**김태홍**

인천시 중구 신흥동 2가 30번지 8-4